

## 9/27(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4

### 데살로니가후서 2: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여러가지 복음의 핏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열성과 함께 잘못된 소문까지 돌면서 성도들 중에 올바른 진리에서 탈선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올바른 재림관을 교훈하게 됩니다.

#### 재림의 혼란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혼란했던 이유는 당시 재림에 관한 다양한 교훈들이 주변에서 나돌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본문에서 ‘영으로’라는 말은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자들이 영으로 예언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19-20절의 말씀 과도 연결됩니다(“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는 아직 성경의 계시가 모두 완성되기 이전이었고 교회 안에 아직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엡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지만 주변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올바른 영적 분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라는 것은 바울과 선교팀으로부터 이전에 전해 들은 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전해 들은 말과 함께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이 뒤섞이면서 진리가 점차 와전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편지’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들 외에도 보관되지 못한 분실된 편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통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관한 교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뒤섞인 교훈들 중에는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두렵게 하는 일이 적잖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올바른 재림의 징조에 대해 다시 교훈하게 된 것입니다.

#### 재림의 징조

바울은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에 있어 가장 큰 징조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3-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에 관한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24:11, 23, 24). 여기서 ‘배교’는 원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 여러군데에서 예언한대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딤후 4:1-2,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혹과 계교에 미혹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이는 앞 구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 때,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 등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적대시 하는 어떤 사람(소문)들의 유혹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볼 때 이는 아직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역사상 한 사람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일 2:18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예언의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미래의 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배교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거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등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과 같이 오늘날에는 ‘영이나 말 그리고 인터넷’등을 통한 잘못된 가르침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개혁 신학자인 R. C. 스프로울은 ‘우리 모두가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거짓된 진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모두는 매주 듣고 배운 말씀으로 인해 각자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학을 잘 점검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 영국의 의학 저널인 란셋(Lancet)의 2021년 7월 보고서에 의하면, 남미 페루에는 약 93,00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빈곤과 불안 그리고 우울 증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페루에서는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국 정후란시스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